

“RE100 가입 국내 기업 급증... 재생에너지 ‘공급폭탄’ 정책 필요”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RE100에 가입하는 국내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공급이 RE100 가입 기업 확산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폭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 세미나”의 세 번째 토론회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태환 CDP한국위원회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RE100 가입률이 (글로벌 수준과 비교해) 낮은 이유는 가입 기준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며 “RE100에 가입하지 않은 대표적 예가 건설 부문이다. 하지만 건설 기업들도 내부적으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내 건설기업들의 RE100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RE100 기업은 SK-아모레퍼시픽-한국수자원공사-KB금융그룹-미래에셋증권-인천국제공항공사-현대자동차-가이아-에이치이-에스케이-선진자-KT 등 27개사(社)다. 김 수석연구원은 내년 중 최소 30개 기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양이원영 의원,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총립실장, 김태환 CDP한국위원회 수석연구원,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양이원영 의원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방안” 토론회
김태환 CDP한국위원회 수석연구원 “재생E 공급 속도, RE100 확산보다 늦을 수도”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총립실장 “지난해 국내생산 재생E, 5대기업 사용량보다 부족”

김 수석연구원은 “RE100 가입 기업의 재생에너지 소비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대략 45% 정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조달을 했다고 보다는 해외사업장에서 조달이 용이한 점을 적극 활용한 영향이었다. 국내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증가가 국내 수입보다 기업 자체 전력에 달려있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RE100 기업이 늘어나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RE100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전력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문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비용이 낮다는 점이다. RE100에 가입한 국내 27

개 기업의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전력 사용량은 약 77TWh(테라와트시)다. 국내사업장만 적용하면 60TWh가량으로 파악된다.

김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1.5% 정도로 늘리면 100TWh 정도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RE100 가입 기업들은 상당히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값싼 에너지 공급은 산업화 시대 한국기업들의 성장 원동력이었다. 이제 세계는 값싼 재생에너지 확보-공급이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며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가격이 내려가려면 공급이 높아야 한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재생에너지 공급폭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RE100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많기 때문에 RE100 확산은 큰 문제가 없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이 따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민간의 수요 창출은 기대에 맞게 따라간다. 최근 국가(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낮아졌다 보니 수요에 공급이 따라갈 수 있을지의 문이 닫혔다”고 말했다.

이처럼 토론회에서는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총립실장이 RE100 기업 현황과 재생에너지 수요-공급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

김 실장은 “대한상의가 올해 8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체 기업의 15% 정도가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고 있고, 대기업은 29% 정도가 받고 있다고 한다”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 중 일부는 당장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자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해외에 전용 공장을 통해 일 단 납품하고 있지만 국내는 여건이 좋지 않다”며 “배터리제품은 탄소발자국 분석을 통해 일정 탄소배출량 미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충족하려면 협력사의 도움도 필요하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공급) 몇몇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중견기업까지 영향을 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은 시점은 2030년 이후가 38%로 가장 많았고, 2025년까지가 33.3% 정도 된다”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요구받은 기업은 9.5% 정도다. 3분의 1 이상 기업들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RE100 기업의 애로사항은 ‘비용’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제도’와 ‘정책’을 꼽았다”며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해외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비용보다 국내기업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 역시 공급부족 문제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전력 소비 30대 기업에 대한 전력 판매실적을 보니, 103TWh 정도 전력 소비를 했고, 그 중 5대 기업은 48TWh 정도 전력 소비를 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TWh다. 5대 기업이 소비한 전력량보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용 기자 02728@sporbiz.co.kr

英 英재세 부과, 탈탄소화 억제?... “불확실성 높여”

에너지 위기 석유-가스 기업 수익이 기준 이상 이익 기업 소득세 추가 EU 비무 獨美 등 도입확대 추진

재생 에너지에 대한 영국의 황제세가 탈탄소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전 세계는 에너지 안보 우려로 영국을 비롯해 독일, 미국 등이 황제세를 부과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황제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직면한 에너지 위기에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이들이 황제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발생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기에도 황제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치솟는 반면 일반 가스로도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부담금은 메가와트시당 90달러 이상으로 판매되는 전력 수익에 45%의 세금이 붙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반드시 풍력이나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에 부과하는 황제세가 수익성을 없애 하진 않지만 투자자나 개발자의 결정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유럽으로 러시아이 가스 수송하는 가스관. 연합뉴스

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번 황제세는 가정용 전기 요금 동결을 위한 자금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재생 가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잠재 수익 4분의 1 이상으로 집계되고, 이로 인해 영국 청정에너지 개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정에너지 연구 회사인 블룸버그NEF의 분석에 따르면 이 세금은 최소 14기가와트의 풍력-태양열 발전 7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저탄소 발전 용량의 40%에 가깝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부과금에서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차액계약(CfD)을 맺고 고정가격으로 판매하는 기업은 전력 가격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또한 100기가와트시 미만을 생산하거나 연간 수익이 1200만달러 미만인 발전

소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상과 해상 풍력의 절반보다 영국의 소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도 면제된다.

그러나 황제세의 영향은 여전히 강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NEF는 전력 가격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세금으로 인한 잠재 수익은 27~28%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도 육상-해상 풍력과 태양광은 여전히 평균 발전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황제세는 추가적인 재생 가능 개발을 방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유발한다는 게 블룸버그 분석이다.

유럽연합(EU)의 메카니즘이 불확실성의 요소로 꼽힌다. EU는 메가와트시당 약 189달러의 고정 가격 상한선 형태 자체 수익을 회수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는 EU와 영국 전력 가격에서

각 세금의 영향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어느 한 시장에서 전력 가격이 하락하면 영국의 세금을 감당하기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EU의 가격 상한선은 더 엄격하지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영향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은 낮은 한계가격으로 인해 전력 가격에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런 시각에도 영국이 에너지 위기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미 수백 총리의 정책 변경 요구 때문이다. 수백 총리는 앞서 2015년 보수당이 재정한 육상 풍력 개발의 금지 정책을 변경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개발의 반대파 아닌 지원한다는 지어의 목소리도 낙관적인 시각에 합류하고 있다.

한편 EU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에 황제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전 회원국에 황제세 부과 정책을 펼쳤다. 황제세를 도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화석연료 사용 기업이 ‘연대 기여금’으로 불리는 황제세를 내야한다.

독일은 연내 황제세 도입을 앞두고 있다.

황제세 지불 대상은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 이상을 초과 달성한 에너지 기업들이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황제세를 거둔 스페인은 내년부터 2년 간 추가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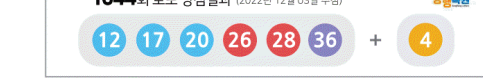
미국 정부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 양자세 황제세 도입 의의를 추진하지만, 의회장이 반대하고 있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리진 기자 jiny340@sporbiz.co.kr



불 밝힌 속초항 양미리 축제장

속초항 양미리 축제장이 지난 3일 밤 불을 켜고 밝히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양미리 축제제는 오는 11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1044회 초도 당점결과 (2022년 12월 03일 추첨)



www.15weather.co.kr

‘K팝’ 역지구 시장 효자... 음반 수출액 최고 기록 등 품목 비중 확대 이끌어

유례없는 K팝 인기로 역지구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K팝 음반 수출액이 역대 최치를 기록하면서, 기존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이 시장 확대 역할을 해왔다면 최근에는 K팝 관련 비중이 높아지면서 역지구 시장을 이끄는 새로운 선수로 도약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은 전년 대비 62.1% 증가한 29억2천83만6000 달러(약 2624억원)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5년 전인 2017년 음반 수출액은 4천418만2천 달러(약 525억원)에 그쳤지만, 2018년 6439만9천 달러(약 766억원),

2019년 7459만4000 달러(약 886억원)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K팝 수출을 호황에 역지구 품목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역지구 이커머스 플랫폼 소피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예만, 중남미 중심으로 K팝 앨범과 굿즈를 포괄하는 퀘미 카레고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피코리아는 “이 중부터 인기 아이돌의 앨범 발표가 이어지면서 앨범과 관련된 굿즈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피코리아 집계 결과 주요 동반자 지역은 멕시코(MEX),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앨범 수요가 크게 나타났고 브라

질, 멕시코는 방탄소년단(BTS) 앨범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CJ올리브영에서도 K팝 관련 역지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8월 글로벌로 신설한 K팝 케고리는 매출 신장이 두드러졌다. 10월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K팝 음반과 K-뷰티 상품에 구매했던 고객이 전체 구매자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리브영은 “2019년 6월 개설한 글로벌의 첫해 회원 수는 3만명 수준이었

으나 K팝 카테고리를 신설한 10월에 60만 명을 돌파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도 크게 나타났다. 소피코리아 집계 결과 주요 동반자 지역은 NCT(엔시티), 스트레이 키즈 등 앨범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방탄소년단 앨범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에서는 북미 등 지역에 트레라피의 두 번째 앨범 ‘안티프라이데이’가 가장 많이 팔렸다.

업계에서는 팬데믹 기해의 투여가 불가능해지면서 외국 팬들이 온라인을 통한 음반 및 K팝 굿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 같은 성장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기 기자 ps9@sporbiz.co.kr

Smart Economy sporbiz.co.kr 한스경제. Contact information: 대표번호 021725-6007, 이메일 sporbiz@sporbiz.co.kr, 구독/광고 021738-9007, 기사제보 021725-7563, FAX 021725-3939, 발행인 송진현, 편집국장 이철규, 총괄부사 김창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길 7 서머빌딩 4층, 구독료 1주 7000원, 한달 13,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서울 가 50072